防風通聖散의 文獻 및 形象醫學的 考察

석민희 · 김준홍[1]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1 : 본디올 세광 한의원

Documentational Study and Observation from the View of Hyungsang Medicine on Bangpungtongseong-san

Min Hee Suck, Jun Hong Kim[1],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 Bondiol Sekwang Oriental Clinic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e studies on Bangpuntongseongsan both from the documents and Hyungsang medicine. Bangpungtongseong-san was created by Yu Wan-so to relieve both interior and exterior of disease from the pathogenic fire, and it cures wind syndrome and dry syndrome. Bangpungtongseong-san is of light herbal combination and it works in the upper part of the body and is mainly applied to skin disease. Perspiration without harming the exterior and purgation without hurting the interior shows that it is not a severe prescription belonging to meditation therapy. It is mostly used for curing the disease of internal heat caused by over drinking and consuming heavy food, and it has special relationship with Yangmyung meridian. It is mentioned in the chapters of spirit, head, face, eye, ear, nose, throat, skin, hair, prescription, wind, dryness, fire, internal damage, epidemic infectious disease, carbuncle and cellulitis, ulceration, and pediatrics of 『Donguibogam』. It is usually applied to those who belong to Yangmyung type of the six meridian types or wind type, who has excessive heat, people with red complexion, reddened nose, pimples over the face and nose, coarse heel, loss of hair due to wind-heat, and to those who tend to have dandruff. Through examination over the cases treated with Hyungsan medicine, Bangpungtongseong-san was found efficacious in bloodshot eyes, brandy nose, loss of hair, various skin problems, tetanus, acute alcoholism, paralysis of hand and foot, deafness, and tinnitus.

Key words : Bangpungtongseong-san(防風通聖散), six meridian types, hyungsang medicine, Yangmyung type, epidemic infectious disease

서 론

防風通聖散은 劉[1]의 宣明論方에 최초로 기재된 처방으로 表證에 內熱을 겸한 경우에 쓰는 表裏雙解之劑로서 一切의 風熱과 飢飽勞役의 內外諸邪에 損傷되어 氣血이 沸鬱하고 表裏와 三焦가 俱實[2]한 증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防風通聖散에서 大黃 芒硝 麻黃을 去한 것을 通聖散이라 한다.[3]

한편 朱[4]는 風熱燥를 치료하는 방제로 熱邪를 땀과 大小便으로 배출하면서 肺, 心, 胃, 脾의 火를 散하고 和血潤燥하며 補脾和中하며 開腸하는 처방이라 하였고,[5] 《東醫寶鑑》에서는 防風通聖散의 主治를 熱, 風, 燥 3가지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데 두루 쓴다고 하였다. 汪[6]은 汗하되 表를 傷하지 않고 下하되 裏를 傷하지 않으니 溫養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 防風通聖散이 나오는 條文으로는 <大下愈狂> 頭門의 <吐法> <搭顋腫> <兩瞼粘睛> <通治眼病藥> <耳鳴>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7/08/06 · 채택 : 2007/09/30

1) 劉完素(1110-?) 字는 守眞, 自號는 玄通處士 金나라 河間사람.
2) 劉完素: 宣明論方 券十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 768
3) 醫學入門 春溫通聖雙解
4) 朱震亨(1281~1358) 字는 彦修 丹溪지방에서 살았기에 丹溪翁이라고도 함.
5) 此方治熱風燥三者之總劑也盖風本於熱熱極則風生燥生於風風動則燥至其實一源流也此方能兼之其用防風麻黃薄荷荊芥使熱邪從玄府出也梔子滑石使熱邪從小便出也大黃朴硝使熱邪從大便出也其餘黃芩散肺火連翹散心火石膏散胃火芍藥散脾火川芎當歸和血潤燥白朮甘草補脾和中桔梗開腸可謂善於處方也(方見風門)<丹心>
6) 汪昂 醫方集解의 著者

<耳聾> <鼻淵> <鼻痔> <引痰眞捷法> <癮疹> <瘡痤痱> <鬚髮黃落> <人病 不過寒濕熱燥> <十八劑> <中風微漸> <調治豫防> <卒中風救急> <精神蒙昧>의 祛風至寶丹 <手足癱瘓> <中風熱證> <破傷風治法> <破傷風之治 同傷寒三法> <燥宜養血> <通治三焦火> <通治火熱藥法> <酒病治法> <大頭瘟治法> <治癰疽大法> <大風瘡> <天疱瘡> <癩頭瘡> <諸瘡>이 있다.

이중에 風이 언급된 條文은 14군데 怒, 火, 熱이 언급된 條文은 25군데, 燥가 언급된 條文은 3군데, 陽明經이 직접 언급된 조문은 5군데, 酒나 飮食 厚味가 언급된 條文은 9개, 榮衛가 언급된 곳은 5군데가 있었다.

따라서 防風通聖散은 飮食, 陽明經과 연관 깊으며 表裏之劑로 榮衛를 疏通시키나 輕劑로서 表病과 上焦疾患을 주로 다스리며 六氣로는 風熱燥를 치료하되 특히 火熱과 가장 관련이 있는 處方이다.

形象醫學에서는 防風通聖散이 적용되는 形象으로 六經形 중에 陽明形, 風人, 實熱이 있으면서 얼굴이 붉은 사람, 코끝이 붉은 사람, 얼굴과 코에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사람, 風熱로 인한 脫毛, 비듬이 잘 생기는 사람 등 각종 피부질환에 적용되었다.

이에 저자는 역대 文獻 考察을 통해 防風通聖散의 의사학적 의의를 살펴보고 形象醫學的인 관점으로 諸疾患에 적용한 防風通聖散의 治驗例를 통해 구체적인 適應症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防風通聖散의 기원과 배경[7]

劉河間은 河間學派의 창시자로서 火熱이 여러 종류의 병증의 원인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 배경으로는 金宋시대의 빈번한 전쟁과 溫熱病의 광범위한 流行, 북부지방의 지리환경으로 술과 膏粱厚味를 많이 먹는 생활관습, 和劑局方이 성행하여 香燥辛溫한 약물이 만들어낸 流弊, 方藥을 중시하고 理法을 경시하던 당시 의학계 분위기였다.

劉河間은 火熱病을 치료하는데 表證과 裏證의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表證은 마땅히 汗解시켜야 한다고 여겼지만, 다만 표가 "怫熱鬱結"한 경우 절대로 辛熱한 藥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며 오직 辛凉 또는 甘寒한 약을 써서 表를 解해야 한다고 하였다.

裏證에는 下法을 쓰는데 아래에 서술한 세 가지에 의거하여 운용할 수 있다. 裏證은 이미 풀어졌으나 裏熱이 鬱結해 있는 경우, 汗이 나왔는데도 熱이 물러나지 않는 경우는 下法을 쓸 수 있다.

熱毒이 極深하여 陽厥陰傷한 소치는 病變이 이미 血分에 영향을 끼쳐, 단순히 承氣湯만을 써서 攻下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黃連解毒湯을 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크게 下한 후에도 熱의 기세가 여전히 盛하거나 혹은 下한 후에 濕熱이 오히려 심하여 下利不止한 경우에는 黃連解毒湯을 써서 餘熱을 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養陰시키는 약물을 겸할 수 있다. 만약 下한 후에 熱이 미진하더라도 盛하지만 않다면 작은 양의 黃連解毒湯 또는 凉膈散을 쓸 수 있다.

表證이 內熱을 겸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表裏雙解의 治法을 쓸 수 있는데 防風通聖散, 雙解散[8] 등이 이러한 경우에 쓰는 表裏之劑이다. 혹은 天水散 한 첩 분량에 凉膈散 반첩 분량을 섞어 쓰거나 혹은 天水散과 凉膈散을 각각 반씩 섞어서 風壅을 散하고 結滯를 開하여 氣血을 宣通시키면 鬱熱이 자연히 解除된다고 보았다. 表證을 법에 따라 發汗시켰으나 풀리지 않고 증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凉膈散으로 그 熱이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防風通聖散이 최초로 기재된 宣明論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此方 治熱 風 燥 三者之總劑也 盖風本於熱 熱極則風生 燥生於風 風動則燥至其實一源流也 此方能兼之其用 防風 麻黃 薄荷 荊芥 使熱邪從玄府出也 梔子 滑石 使熱邪從小便出也 大黃 朴硝 使熱邪從大便出也 其餘黃芩散肺火, 連翹散心火, 石膏散胃火, 芍藥散脾火, 川芎 當歸 和血潤燥, 白朮 甘草 補脾和中, 桔梗開膈 可謂善於處方也"

2. 문헌 및 고찰

1) 醫學入門[9]

(1) 七方十劑有機關

防風通聖散은 凉膈散에 몇 가지 약제를 가미한 複方이다[10].

(2) 一十八劑

防風通聖散은 輕劑이다[11].

(3)【表裏俱有】表裏가 모두 急하면 防風通聖散 大柴胡湯을 쓴다.[12]

(4) 春變爲【溫】夏變爲【熱】

春溫에 병세가 重하여 表裏가 동시에 발병하면 防風通聖散을 쓴다[13].

(5)【瘡毒】

속칭 赤膈傷寒이라 하는 증상에 裏實證이 있으면 防風通聖散을 쓴다[14].

(6) 春溫通聖雙解

防風通聖散의 처방구성과 각종 주치증을 말함[15].

---

7)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4

8) 【雙解散】 防風 川芎 當歸 芍藥 薄荷 大黃 麻黃 連翹 芒硝 石膏 桔梗 滑石 白朮 梔子 荊芥 甘草 黃芩 蔥白 豉 生薑 (傷寒直格 券下)

9) 編註醫學入門 1994 서울 大星文化社

10) 偶方有二:有古之複方之偶方, 一四六八十, 皆陰數也, 故偶方宜汗不宜下. 凡入陰之分亦謂之偶. 複方有二:有二方三方之複方, 如調胃承氣湯加連翹, 黃芩, 山梔, 薄荷爲凉膈散. 加防風, 荊芥, 石羔, 滑石, 桔梗, 川芎, 麻黃, 當歸, 芍藥, 白朮爲防風通聖散;有分兩均齊之複方, 胃風湯是也.

11) 輕劑 防風通聖散 合益元散 名雙解散 在表當汗者俱宜 連進數服必愈 不解者病已傳變

12) 【表裏俱有】察其孰少孰 多表裏俱急者 防風通聖散 大柴胡湯

13) 表證 天溫 升麻葛根湯 天寒 柴胡桂枝湯. 太陽合少陽 敗毒散 合小柴胡 太陽合陽明 敗毒散 合升麻葛根 陽明合少陽 升麻葛根湯 合小柴胡湯 半表裏 小柴胡 裏證 大柴胡 重者 一時表裏俱發 防風通聖散 表裏俱熱 大便自利者 柴笭湯 加山梔木通 虛煩竹葉石膏湯 變雜證 悉同傷寒

14) 凡患癰疽背發疔瘡 一切無名腫毒 初起 寒熱 全類傷寒 但傷寒不食 瘡毒飮食如常 且身有紅腫炘痛處 可驗 不可妄施汗下 宜外科法治之
○ 俗呼 赤膈傷寒 胸膈 赤腫 疼痛 寒熱 類傷寒 非正傷寒也 宜荊防敗毒散 合小陷胸湯 裏實者 防風通聖散

15) 防風通聖散 防風 川芎 當歸 赤芍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各二

(7) 中風에서 中藏 中腑가 함께 보이고 表裏를 함께 攻할 자는 防風通聖散을 쓴다[16].

(8) 手足癱瘓에서 아픈 것은 實證인데 먼저 二陳湯으로 治痰하고 다음에 防風通聖散을 복용한다.[17]

(9) 挾內愼勿專攻外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평소에 痰火가 많으며 때때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며 목소리가 무겁고 기침가래가 있어서 마치 外感증상이 있는 것 같은 자가 심하면 防風通聖散을 쓴다고 하였다.[18]

(10) 四氣相兼兼中兼感濕熱甚에서는 四氣互相兼倂에서 寒濕보다 濕熱이 더욱 많으며 濕熱은 防風通聖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19]

(11) 頭風

오래되고 심하면 火鬱하여 여러 겹 둘러싸 놓은 것과 같다. 頭風證이 發할 때 답답하고 아프며 반드시 머리띠로 둘러싸 놓은 것과 같은 것은 熱鬱이다. 凉血瀉火를 위주로 하고 辛溫으로 發散한다. 二陳湯加味方과 防風通聖散을 쓴다.[20]

(12) 面風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은 風熱인데 얼굴과 입술이 검고 배고픈 것처럼 가슴에 무언가 달린 것 같으면 防風通聖散을 쓴다.[21]

(13) 술로 인한 耳聾에는 通聖散加味를 쓰고 風聾에는 防風通聖散을 쓴다.[22]

(14) 風熱로 인한 耳鳴에는 通聖散을 쓴다.

대개 耳聾은 痰火鬱結로 많이 오는데 소통시켜 낫게 한 후에는 通聖散으로 조리한다.[23]

(15) 鼻淵에서 膽移熱於腦하여 탁한 콧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것은 防風通聖散加味한다.[24]

(16) 鼻痔가 심해진 것을 鼻齆라고 하는데 防風通聖散加味한다.[25]

(17) 痛風에서 풍증으로 黃汗이 나며 얼굴이 약간 붉고 당기고 아프며 열이 나는 자는 防風通聖散을 쓴다.[26]

(18) 斑疹에서 便閉者는 防風通聖散으로 조금씩 소통시키는데 변이 심하게 막히지 않은 것은 去硝黃하고 몸이 우리하게 아프면 蒼朮, 羌活을 가하고 痰嗽가 있으면 半夏를 가하고 열이 심한 자는 黑奴丸을 쓴다.[27]

(19) 痙에서 風痰이 盛한 자는 敗毒散 加味 혹은 通聖散加味와 壽星丸, 姜汁 竹瀝下를 間服한다.[28]

分半 石膏 黃芩 桔梗各五分 滑石一錢半 甘草一錢 荊芥 白朮 山梔各一分半 薑三片 水煎溫服. 治春夏溫熱, 狀如傷寒, 表裏俱見者. 兼治內科 一切風寒燥熱 及飮酒中風 或便閉 或肫泄 或風熱上壅不言等證. 雜科 耳 目 口 鼻 唇 舌 咽喉風熱 風痰等證. 外科癰疽 瘡癤 發斑 打撲跌傷等證. 小兒 驚疳積熱, 諸風潮搐, 痘出不快等證. 婦人諸疾, 合四物湯一料. 凡屬風熱之疾, 無所不治. 如自利 去硝黃, 自汗 去麻黃, 名通聖散

16) 又有中經亦要知 內無便溺阻隔 外無六經形證從中治
不可汗下, 蓋風本於熱, 熱勝則風動, 宜養血以勝燥, 大秦艽湯分經加減, 或天麻丸 羌活愈風湯. 如欲微汗, 愈風湯加麻黃, 欲微利, 愈風湯加大黃. 中腑雖宜汗, 汗多則亡陽, 中臟雖宜下, 下多則亡陰. 若臟腑兼見者, 或先汗而後利, 或表裏兼攻者, 防風通聖散.

17) 痰與氣虛身右居
血虛則痰火流注於左而爲癱, 氣虛則痰火流注於右而爲瘓, 急治則愈, 久則痰火鬱結難治. 痛者爲實 先以二陳 省風之類治痰, 後以防風通聖散瀉靑丸之類瀉火, 不痛爲虛, 血虛者, 四物湯俱薑汁炒過, 加竹瀝 薑汁. 肥人濕痰, 少加附子行經, 瘦人火動, 加黃柏, 氣虛者, 四君子湯, 虛甚, 遺尿聲鼾睡者, 濃煎參芪加附子薑汁, 勞傷者, 補中益氣湯加竹瀝, 兼治右㴱. 痰盛者, 二陳湯加薑汁 竹瀝, 能食者 換荊瀝, 此丹溪雜病通法也.

18) 服食過厚 素有痰火 時常鼻塞流涕, 聲重咳嗽, 略被外感則甚者 防風通聖散 或大黃 黃芩等分爲丸 白水下. 素虛者 只用防風 羌活 川芎 隨宜加入補藥 痰藥中. 傷食 加白朮 陳皮靑皮 山査 麥芽. 挾形寒飮冷 加薑桂. 挾房勞 加參朮 歸地. 挾勞役傷氣者 補中益氣湯加羌活 防風. 風虛甚者 羌活丸 加味烏荊丸.

19) 四氣互相兼倂 惟寒濕 濕熱爲病 濕熱尤多. 以尿赤 有渴爲濕熱, 多黑瘦膏粱之人 以便淸不渴爲寒濕, 多肥白淡食之人. 昔有專用五積 治寒濕, 防風通聖散治濕熱. 宜哉!

20) 久甚火鬱裹重綿, 頭風發時, 悶痛必欲綿帕裹包者, 熱鬱也, 宜凉血瀉火爲主, 佐以辛溫散表從治, 二陳湯, 加酒炒黃芩, 及荊芥, 薄荷, 川芎, 石羔, 細辛, 或消風百解散, 防風通聖散. ○有三陽熱鬱, 頭痛不敢見光, 喜置氷於頂者, 宜辛凉, 汗, 吐, 下三法倂行乃愈. 又有偏痛年久, 便燥, 目赤, 眩暈者, 乃肺乘肝, 氣鬱血壅而然, 宜大承氣湯下之. 外用大黃, 芒硝, 爲末, 井底泥調塗兩太陽穴上, 乃愈.

21) ［面風］虛食熱不食, 面腫乃食後冒風所致. 能食者, 風虛, 面麻木, 牙關急搐, 升麻胃風湯, 不食者, 風熱, 面唇黑, 心懸如饑, 防風通聖散. 內傷氣促者, 升麻順氣湯.

22) 痰火風濕氣閉可通, 痰火, 因膏粱胃熱上升, 兩耳蟬鳴. 熱鬱甚, 則氣閉漸聾, 眼中流火, 宜二陳湯加黃柏木通, 萹蓄, 瞿麥. 因酒者, 通聖散加南星, 枳殼, 大黃, 或滾痰丸. ○風聾, 因風邪入耳, 必內作痒, 或兼頭痛. 風熱或因鬱者, 防風通聖散, 先將大黃酒煨, 又酒炒三遍, 後入諸藥俱用酒炒煎服. 風壅連頭目不淸者, 淸神散. 風虛者, 排風湯, 桂香飮, 芎芷散. ○濕聾, 因雨水浸漬, 必內腫痛, 凉膈散加羌活, 防風, 俱用酒炒, 或五苓散加陳皮, 枳殼, 紫蘇, 生薑, 濕痰, 神芎丸. 濕熱挾氣, 木香檳榔丸.

23) 耳鳴乃是聾之漸, 惟氣閉多不鳴便聾. 風熱鳴者, 解毒湯加生地, 知母, 或通聖散, 痰火鳴甚, 當歸龍薈丸, 挾濕, 神芎丸, 或靑木香丸, 腎虛微鳴, 滋腎丸. 氣虛 四君子湯下, 血虛四物湯下, 陰虛虎潛丸. 聹膿疼皆風熱湊, 聹耳, 原有油液, 風熱搏擊結核, 鳴欲聾者, 外用生猪脂, 地龍, 鍋煤等分, 薑汁和丸棗核大, 綿裹入耳, 令潤挑去, 重者, 內服柴胡聰耳湯. ○膿耳, 風熱上壅, 流膿, 外用枯礬五分, 陳皮胭脂俱燒灰各二分, 麝五釐, 爲末, 吹耳, 重者, 內服犀角飮子. ○耳疼如蟲走者, 風盛, 乾痛者, 風熱或屬虛火, 有血水者, 風濕, 外用蛇退燒存性爲末吹入, 或枯礬末亦可. 疼甚, 用吳萸, 烏頭尖, 大黃搗爛, 盦足掌心. 重者, 內服東垣鼠粘子湯.
大要調氣與開關竅, 腎, 水竅, 耳而能聞聲者, 水生於金也. 肺主氣, 一身之氣貫於耳, 故能聽聲. 凡治諸聾, 必先調氣開鬱, 間用磁石羊腎丸開竅. 蓋聾皆痰火鬱結, 非磁石鎭墜, 烏, 桂, 椒, 辛, 菖蒲辛散流通, 則老痰鬱火何由而開? 然亦刦劑也, 愈後以通聖散和之.

24) ○淵者, 鼻流濁涕, 熱盛, 金沸草散倍黃芩, 入鳳凰殼一枚, 燒存性調服. 肺風, 消風散加髮灰. 肺火流涕, 咳吐膿血, 桔梗湯, 人參平肺散. ○膽移熱於腦, 流涕濁臭, 防風通聖散加薄荷, 黃連, 或芷荑散, 外用蒼耳根, 莖, 苗子燒灰, 醋調塗鼻內

25) 鼻痔, 肺氣熱極, 日久凝濁, 結成瘜肉如棗, 滯塞鼻孔. 甚者, 又名鼻齆, 宜防風通聖散, 加三稜, 海藻末調服.外用辛荑爲君, 細辛, 杏仁少許爲末, 和羊髓猪脂熬膏候冷, 入雄黃, 白礬, 輕粉, 麝香少許爲丸, 綿裹塞鼻, 數日卽脫. 甚者加罔砂少許, 或瓜礬散亦妙.又食積熱痰生痔者, 單蒼耳丸, 內服外敷, 最消食積, 或用白礬二錢, 細辛一錢, 白芷五分, 爲末塞鼻.

26) ［痛風］歷節分怯勇, 形怯瘦者, 多內因血虛有火, 形肥勇者, 多外因風濕生痰. 以其循歷遍身, 曰歷節風. 甚如虎咬, 曰白虎風. 痛必夜甚者, 血行於陰也.
風毒髓痛共一種. ○痛風, 百節酸疼無定處, 久則變成風毒, 痛入骨髓, 不移其處, 虎骨散 , 麝香丸. 如赤腫灼熱者, 敗毒散, 肢節. 腫痛, 挾濕熱者, 麻黃赤芍湯主之.
濕痛如脫風汗黃, 外因濕證 腫滿身痛如脫者, 除濕湯, 寒濕者, 附子六物湯, 促虎丸, 濕熱者, 五苓散加蒼朮, 防風, 羌活, 白芷, 黃柏, 竹瀝, 姜汁, 走注者, 四妙散, 肢節, 腫, 脈滑者, 加南星, 木香, 檳榔, 蒼朮, 黃柏, 防己. ○濕氣背偏僂, 足攣成廢者, 用甘遂一錢爲末, 入猪腰內, 煨食之, 上吐下瀉. ○風證黃汗出, 面微紅, 掣痛, 熱者, 防風通聖散, 或小續命湯去附子, 加羌活, 黃芩 虛者, 烏藥順氣散, 獨活寄生湯, 上體金棗丹, 下體換腿丸. ○風中肩背, 太陽氣鬱不可回顧, 或肺氣鬱熱, 小便數而欠伸, 宜通氣防風湯, 羌活勝濕湯. ○風濕相搏痛者, 甛瓜子丸, 神仙飛步丹, 龍虎丹, 活絡丹, 乳香黑虎丹, 活血應痛丸. ○風濕毒生瘡者, 單蒼耳加羌活, 防風十分之二爲末, 蜜丸梧子大, 每百丸酒下, 或單稀簽丸一斤, 加四物湯料各五錢, 防風, 羌活各三錢, 川烏一錢半, 爲末蜜丸空心茶酒. 任下. ○風寒濕熱成痺, 臂髀腰脚骨熱腫痛, 行步艱難者, 二妙[1]蒼柏散等分, 加虎脛骨減半, 爲末水調服.

27) 便閉者, 防風通聖散微利之, 便不甚閉, 去硝黃, 身疼, 加蒼朮, 羌活, 痰嗽加半夏, 熱甚者, 黑奴丸.

(20) 咽喉에서 實火로 인할 때는 반드시 風痰을 먼저 없앤 이후에 熱毒을 풀어야 한다. 防風通聖散을 쓸 수 있다. 29)

(21) 惡寒에서는 오랜 병으로 熱藥을 지나치게 복용하여 惡寒이 있으면 通聖散加 生地黃 當歸를 쓴다.30)

(22) 養老에서는 火動風痰이 百病을 촉진한다면서 陽虛氣盛하여 兩手脈이 大緊數하고 飮食이 당기고 눈꺼풀이 붉고 정신이 또렷하며 수시로 煩渴膈熱하고 大便이 막히더라도 和平한 약으로 消解하고 절대로 苦寒踈瀉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火證 風證에 戰掉氣亂하여 目直口噙筋急者에 通聖散을 쓴다고 하였다.31)

(23) 風熱宜上淸 四神至寶曝日에서 나온 至寶丹과 愈風湯은 防風通聖散加味方이었다.32)

(24) 外感病에 表鬱熱盛하여서 痘難出일 경우 邪傳入裏하여 二便이 모두 힘들어지고 소변에서 피가 보이는 자는 凉膈散 防風通聖散으로 下하고 감히 下하기 힘들면 蜜導法을 쓴다.33)

(25) 麻毒 初起에 傷寒과 비슷하고 便秘가 3-4일정도 있으면 防風通聖散을 쓸 수 있다.34)

(26) 禿瘡이 오래되어 안으로 전변되었을 때 通聖散을 복용한다.35)

(27) 大頭腫에 裏證이 심한 자는 防風通聖散 加牛蒡子玄蔘 俱用酒炒로 조금씩 下할 수 있다.36)

(28) 五疥 중 濕疥에 오래되어 검은콩즙같은 물이 흐르고 便秘가 있는 것은 脾에 濕熱毒이 鬱한 것인데 防風通聖散을 쓸 수 있다.37)

(29) 五癬에 오래되어 감히 汗下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防風通聖散去炒黃 加浮萍皁刺하여 水煎服할 수 있다.38)

(30) 癩風은 먼저 陽明을 치료해야 하는데 初起에 防風通聖散을 복용하되 上에 있으면 麻黃을 사용해서 去外毒하고 下에 있으면 硝黃을 사용하여 去內毒하고 上下에 있으면 正料防風通聖散을 사용하여 解表攻裏하며 3-5일 후에 醉仙散을 복용하여 吐惡涎한 후 다시 防風通聖散 去硝黃麻黃하여 오랫동안 복용하여 胃氣가 조금 안정되면 再造散을 사용하여 下其蟲한다. 吐下後에는 다시 防風通聖散 凉加蔘芪熟地하여 固氣血한다. 혹 脾胃弱者는 白朮을 倍用한다.39)

(31) 楊梅瘡 初起에 防風通聖散 一貼에 去麻黃 用硝黃하여 去內毒하여 胃氣가 조금 안정되면 다시 二一貼 去 硝黃 用麻黃하여 發汗하여 去外毒한 후에加減通聖散丸을 많이 먹는다. 內通臟腑 外發經絡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要藥이 된다. 가벼운 자는 한제를 복용한 후 다시 발라 씻으면 족하나 重한 자는 十貼을 복용한 후 化毒散을 3日 복용하고 吹藥을 3日일 복용하여 瘡이 마르고 딱지가 떨어지려 하면 다시 化毒散을 3日 복용한 후 防風通聖散 加減을 많이 사용한다.40)

(32) 楊梅에 사용하는 加減通聖散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防風 白蘚皮 赤芍 蓮翹 黃芩 各 3 g 牛蒡子 4 g 金銀花 1 g

---

28) ○風痰盛者, 敗毒散加防風 天麻 黃芩 全蝎 生姜 薄荷, 或通聖散加人參 柴胡, 間服壽星丸, 姜汁 竹瀝下.

29) 火有虛實從何知?實火便閉胸必緊, 實火, 因過食煎炒, 蘊熱積毒, 煩渴, 二便. 閉澁, 風痰上壅, 將發喉痺, 必先三日胸膈不利, 脈弦而數. 治宜先去風痰, 而後解熱毒, 凉膈散加黃連 荊芥 石羔, 或古荊黃湯 防風通聖散 三黃丸含化. 又風燥咽喉建枯, 常如毛刺, 呑嚥有碍, 敗毒散加黃芩 半夏, 倍桔梗薄荷, 生姜煎服, 痰盛加石羔. 凡服此藥, 子服午攻, 午服子攻. 如嘔吐咯傷, 因食熱物及穀芒刺澁, 風熱併與血氣相搏腫痛者, 消風散加薄荷 玄參 全蝎, 或射干湯 牛蒡子湯. 木舌 重舌者, 如聖金錠. 舌根腫者, 麝香朱砂丸. 時行咽痛者, 普濟消毒飮.

30) ○素病虛熱, 忽覺惡寒, 須臾戰慄, 如喪神守, 乃火炎痰鬱, 抑遏淸道, 不能固密腠理, 四物湯加黃芪 黃連黃栢, 或合二陳湯. 如火剋肺, 洒淅惡寒者, 甘桔湯, 加酒芩 山梔 麥門冬 五味子, 惡寒糞燥者, 四物湯加大黃下之. 久病過服熱藥惡寒者, 先探吐痰後以通聖散加生地當歸, 或四物湯去芎, 倍地黃, 加白朮 黃栢 參 芪 甘草, 通一炒熱煎服. 如酒熱內鬱惡寒者, 黃芪一兩, 葛根五錢煎服, 大汗而愈.

31) 火動風痰百病摧, 陽虛氣盛, 兩手脈大緊數, 飮食倍進, 臉紅神健, 雖時有煩渴膈熱, 大便閉結, 但以平和湯藥消解, 切不可用苦寒踈瀉. ○火證 風證, 戰掉氣亂, 目直口噙筋急者, 通聖散,

32) 至寶丹 治風邪中藏 痰涎昏冒 及諸風熱. 卽防風通聖散加熟地黃 天麻 人參 羌活 黃連 黃栢 全蝎 爲末蜜丸 彈子大 每1丸 臨臥細嚼 茶酒臨下 愈風丹 治諸般風證 偏正頭痛 常宜服此 調理. 卽防風通聖散合四物湯 解毒湯 各一料 加羌活 何首烏 細辛 菊花 天麻 獨活 薄荷各40g 爲末蜜丸彈子大 每1丸 細嚼 茶酒臨下.

33) ○外感 表鬱熱盛 痘難出 難作漿 宜表托 以助其欲發之勢 兼心證者 惺惺散 消毒飮, 兼肝證者 人蔘羌活散, 兼脾證 虛者 惺惺散 或保元湯 加地皮 黃芩 荊芥, 熱者 升麻葛根湯 如聖湯, 兼肺證者 參蘇飮 加蔥白 山査根. 通用 無汗者 羌活沖和湯, 有汗者 防風沖和湯. 邪傳半表半裏 見胸緊嘔吐 煩躁不眠等證 小柴胡 加生地, 虛者 二參湯, 邪傳入裏 二便俱秘 或溺中見血者 凉膈散 防風通聖散 下之, 有不敢下者 蜜導法. 輕者 四聖散 合敗毒散 或合辰砂六一散 或解毒湯 微微滲利 不可盡去其熱 恐痘難發

34) 初起 寒熱咳嚏鼽
面赤全不 思食味 初起 全類傷寒 但面赤 中指冷 爲異耳 煩喘便秘 譫如狂已出 煩躁作渴者 解毒湯 合白虎湯 喘滿便秘者 [前胡枳殼湯] 赤茯苓大黃甘草五味 水煎服 便秘三四日者 小承氣湯防風通聖散 譫語溺秘者 導赤散 如泄者 四苓散 加車前木通 譫語如狂者 解毒湯調辰砂六一散

35) 禿瘡 初起 白團 斑剝如癬 上有白皮 久則城痂 遂至滿頭生瘡 中有膿孔細蟲 入裏 不痛 微痒 經久不瘥 宜內用通聖散 酒拌 除大黃 另用酒炒 共爲末 再用酒拌 令乾每一錢 水煎服 外用紅炭 淬長流水 洗去瘡痂 再用淡豆豉一合 炒 令烟起色焦 屋塵一團 飯飮 調劑 炭火煆 令灰燼 等分 爲末 入輕粉 少虛 麻油 調搽 如有熱 加黃連寒水石 有水 加枯礬 有蟲加川椒 麝香少許 腫厚 加消皮烟洞烟膠 香爐蓋上香膠 如久不愈 有蟲者 摩風膏 加黃栢黃丹 烟膠 各一兩 一方 用鹽烏魚頭燒灰 麻油 調搽

36) 治分表裏 三陽屬
連兩目鼻面腫者 陽明也 發耳前後病頭角者 少陽也 腦後項下腫起者 太陽也 脈浮 表證多者 淸震湯 或敗毒散 加荊防 脈沈 裏證見者 宜羌活黃芩 俱酒炒 大黃 酒蒸 爲主 陽明 加乾葛升麻 芍藥石膏 少陽 加瓜蔞仁 牛蒡子 太陽 加荊芥防風 水煎 時時呷之 取大便 邪氣去則止 甚者 加芒硝 或防風通聖散 加牛蒡子玄蔘 俱用酒炒 微微下之.

37) 濕疥 옥腫作痛 久則水流如黑豆汁 便秘者 爲脾鬱 濕熱毒 防風通聖散 俱酒蒸 或炒大黃 另用酒煨炒三次 加木鱉子 或升麻葛根湯 加川麻蟬退 氣滯 復元通氣散 濕勝者 除濕丹 便利者 爲脾虛 濕熱 補中益氣湯 量加芩連 淸熱 芎芷 燥濕 胃火 作渴者 竹葉黃芪湯 脾鬱 盜汗不寢者 歸脾湯 溺澁腹脹者 胃苓湯 加黃連 久者 二炒蒼栢丸 濕勝 單蒼朮膏 脾肺風毒者 何首烏散

38) ○諸風濕蟲癬 與疥瘡大同 初起有可下者 打膿散 去黃連金銀花穿山甲芒硝 加赤芍白芍 水酒各半煎臨熟 入大黃露一宿 五更服 有可汗者 四物湯加荊芥 麻黃各五錢浮萍一兩蔥豉 煎服取汗 一切癩癬 皆効 經久不敢汗下者 只用防風通聖散去炒黃 加浮萍皁刺 水煎服 久年不愈 體盛者 兼呑頑癬丸 或古龍虎丹 用何首烏白芷蘇木等分 入猪油及鹽少許 浸酒 送下 體虛者 不可妄用風藥 氣虛者 何首烏散 消風散 血燥者 四聖四老丹 或腎氣丸 久服 自効 有蟲者 俱宜間服蠟礬丸

39) 總是陽明 血熱化 熱甚 痰瘀腐爲蟲 追蟲取涎 藥必伯
胃與大腸 無物不受 脾主肌肉 肺主皮毛 然 瘡痂 雖見於皮肉 而熱毒 必歸於腸胃 故 法 必先治陽明 初起 宜 防風通聖散 在上 用麻黃 以去外毒 在下 用硝黃 以去內毒 上下俱見者 用正料防風通聖散 以解表攻裏 三五日後 卽服醉仙散 以吐惡涎 服後 又服防風通聖散 去硝黃麻黃 多服久服 待胃氣稍定 用再造散 以下其蟲 又有宜先下蟲而後 吐涎者 吐下後 仍以防風通聖散 凉加蔘芪熟地 以固氣血 或脾胃弱者 白朮 當倍用

40) 初起 卽服防風通聖散 一貼 去麻黃 用硝黃 以去內毒 待胃氣稍定 再二一貼 去 硝黃 用麻黃 發汗 以去外毒 以後 用加減通聖散丸 多服此方 內通臟腑 外發經絡 爲首尾要藥 輕者 服此一劑 更可搽洗 足矣 重者 十貼後 宜服化毒散 三日 卻用吹藥 三日 瘡乾 痂欲脫落 再服化毒散 三日後 量用防風通聖散 加減 上體多者 兼服敗毒散 加荊防鉤藤 下體多者 兼服龍膽瀉肝湯 從鼻準腫起 遍身生瘡 面上 尤多者 樺皮散 便燥者 搜風順氣丸 以此 調理 斷根

山梔 歸尾 各 2 g 荊芥 槐花 各 2 g 殭蠶 甘草 各 1 g 水煎服. 如初起 便秘 加酒大黃 6 g 便難 加皂刺 1 g 胃弱食少 加白朮 4 g 陳皮 半夏 各 2 g 頭上多 加川芎 3 g 薄荷 0.5 g 下部多 加牛膝 黃栢 各 2 g 遍身多 加木通 桔梗 地骨皮 各 3 g 心火 加黃連 腎火 加玄蔘 各 2 g 氣虛 加參芪 血虛 加熟地 各 3 g 久虛便利 加粳飯 20 g

(33) 天疱瘡을 치료할 때 먼저 野菊花棗木根을 끓인 물로 씻은 후 防風通聖散에 蚯蚓泥를 가루내어 약간 炒하여 꿀로 반죽하여 붙이면 매우 좋다. 뱃가죽 위에 생기는 것은 裏熱이 밖으로 나온 것이므로 防風通聖散을 복용한다.[41]

2) 東醫寶鑑[42]

(1)【大下愈狂201】

狂證에 下한 후 通聖散으로 調理한다.[43]

(2)【吐法505】

두풍증으로 어지럼증이 생긴 데는 獨聖散으로 토하게 해야 한다. 토한 다음에는 상초를 시원하게 하고 火를 내리게 하는 약을 써야 하는데 防風通聖散에 반하와 천남성을 넣어 쓴다.[44]

(3)【搭顋腫탑시종514】

양명경에 풍사가 침범해서 부었을 때는 通聖散加減方을 쓴다.[45]

(4)【兩瞼粘睛536】

爛弦風에는 防風通聖散去硝黃을 쓴다.[46]

(5)【通治眼病藥565】

內外障諸證에 通聖散加減法을 쓴다.[47]

(6)【耳鳴575】

風熱과 酒熱로 귀에서 소리가 나는 데는 通聖散에 枳殼 柴胡 南星 桔梗 靑皮 荊芥酒炒를 넣어 달여 먹는다.[48]

(7)【耳聾578】

양쪽 귀가 다 먹은 것은 족양명의 火이다. 독한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잘 걸린다. 通聖散과 滾痰丸을 주로 쓴다.

41) 治天疱瘡方 用野菊花棗木根 煎湯洗 洗後 用防風通聖散 同蚯蚓泥 爲末 略炒 蜜調敷之 極妙 或地龍 黃栢 滑石爲末 油調敷之. 如從肚皮上起者 裏熱 發外 宜內服防風通聖散加減.

42) 對譯 東醫寶鑑 2002 法仁文化社(제목 뒤에 나오는 숫자는 페이지 숫자임)

43) 一人病陽厥狂怒罵詈或歌或哭六脉無力身表如氷石發則叫呼高聲易老曰奪食則已因不與食又以大承氣湯(方見寒門)下之五七行瀉渣穢數斗身溫脉生而愈<綱目> ○ 一叟値徭役煩擾而暴發狂口鼻覺如蟲行兩手爬搔數年不已脈皆洪大如絙戴人斷之曰肝主謀膽主決徭役迫遽財不能支則肝屢謀而膽屢不能決屈無所伸怒無所泄心火盤礴乘陽明金然胃本屬土而肝屬木膽屬相火火隨木氣而入胃故暴發狂乃置燠室中涌而汗出三次又以調胃承氣湯(方見寒門)大下二十餘行血水與瘀血相雜而下數升來日乃康後以通聖散調其後<儒門事親>

44) ○頭風眩暈可用獨聖散(卽瓜蔕散)吐之吐訖可用淸上降火之劑防風通聖散(方見風門)加半夏南星<子和>

45) [加味消毒飮] 治搭腮腫荊芥防風惡實甘草連翹羌活各一錢右剉作一貼水煎服 <醫脈> ○ 醫鑑一名驅風解毒散 ○ 一人頭項偏腫連一目若半壺其脉洪大戴人曰內經云面腫者風此風乘陽明經也氣血俱多風腫宜汗先與通聖散去硝黃入薑葱豉同煎服微汗以草莖刺鼻中出血其腫立消<子和>

46) ○爛弦風者風沿眼系上膈有積熱自飮食中挾怒氣而成積而久也眼沿因膿潰而腫其中生細小虫絲遂年久不愈而多痒者是也用還睛紫金丹以銀□□股點之若痒者又當去虫以絶根本又與防風通聖散去硝黃(方見風門)爲細末酒拌晒乾依法服之禁諸厚味<綱目>

47) [通聖散加減法]治眼目赤腫風熱爛弦內外障腎羞明怕日倒睫出淚兩瞼赤爛紅筋瘀血等證通聖散(方見風門)去硝黃加甘菊細辛羌活獨活白蒺藜木賊蔓荊子草決明玄參蟬退<回春>

48) 風熱酒熱耳鳴用通聖散(方見風門) 加枳殼柴胡南星桔梗靑皮荊芥酒炒製煎服 <丹心>

일반적으로 귀가 먹는 것은 다 담화가 몰리고 뭉치기 때문에 생긴다. 자석의 누르는 효능과 천오와 육계, 산초의 매운 맛, 석창포의 매우면서도 헤치고 통하게 하는 작용이 아니면 오랜 담과 울화를 풀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다음에 通聖散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49]

(8)【風聾579】

반드시 귀가 가렵거나 머리가 아프다. 酒製通聖散이나 通聖散倍入酒煨大黃을 쓸 수 있다.[50]

(9)【鼻淵590】

鼻淵에 쓰는 黃連通聖散은 防風通聖散加味方이다.[51]

(10)【鼻痔593】

코 안에 군살이 생기는 것은 폐에 심한 열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탁한 것이 엉기고 뭉치기 때문인데 대추씨만한 궂은살이 콧구멍을 막게 된다. 이것이 심한 것을 鼻鼈이라 하며 防風通聖散에 三稜과 海藻를 가루내어 넣어서 먹은 다음 辛夷膏로 코를 막으면 곧 낫는다.[52]

(11)【引痰眞捷法645】의 [去涎方]을 보면 喉痺證을 풀어낸 후 防風通聖散으로 조리한다.[53]

(12)【癮疹731】

癮疹이 붉거나 흰 데는 防風通聖散에서 芒硝를 빼고 豆豉 葱白을 넣고 麻黃을 배로 넣어 달여 먹고 땀을 내는 것이 좋다.[54]

(13)【瘡痤痺733】

內經에는 "일을 하고 난 뒤에 땀이 났을 때 풍한을 받아 상박되면 비사증이 되고, 그것이 몰리면 뾰루지가 된다"고 하였다. 뾰루지는 일을 했을 때 땀구멍에서 땀이 나와 기름기와 엉겨서 생기게 된다. 이런 데는 防風通聖散에서 芒硝를 빼고 芍藥 當歸를 곱절 넣어 땀구멍에 들어 있는 풍사를 발산시키고 영위를 조화시켜야 한다.[55]

(14)【鬚髮黃落797】

기름지고 맛좋은 음식을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열과 습담이 생겨서 훈증하는데, 그것이 머리털 뿌리까지 미치고 피가 점차 마르게 되어 머리털이 빠진 것이다. 防風通聖散에 芒硝를 빼고 여기에 大黃과 四物湯처방을 섞어서 1첩으로 하여 2달 동

49) 耳聾皆屬於熱然有左耳聾者有右耳聾者有左右耳俱聾者不可不分夫左耳聾者足少陽火也忿怒之人多有之龍薈丸主之(方見上)右耳聾者足太陽之火也色慾之人多有之六味地黃丸主之(方見虛勞)左右俱聾者足陽明之火也醇酒厚味之人多有之通聖散(方見風門)滾痰丸(方見痰飮)主之總三者而言之則忿怒致耳聾者爲多厥陰少陽火多故也<丹心>○腎水竅耳而能聞聲者水生於金也肺主氣一身之氣貫於耳故能聽聲凡治諸聾必先調氣開鬱間用磁石羊腎丸以開關竅盖聾皆痰火鬱結非磁石鎭墜烏桂椒辛菖蒲辛散流通則老痰鬱火何由而開愈後以通聖散和之可也<入門>

50) 風聾者風邪入耳必耳中痒或頭痛風熱鬱者宜酒製通聖散<入門>○耳聾皆屬於熱少陽厥陰熱多宜開痰散風熱通聖散(方見風門)倍入酒煨大黃再用酒炒三次後入諸藥通用酒炒水煎食後服<丹心>○風虛耳聾宜桂香散<入門>

51) [黃連通聖散]治鼻淵證卽風門防風通聖散加酒炒黃連薄荷葉煎服<醫鑑>

52) ○鼻痔者肺氣熱極日久凝濁結成瘜肉如棗大滯塞鼻竅甚者亦名鼻鼈防風通聖散(方見風門)加三稜海藻末調服外用辛夷膏塞鼻卽愈<入門>

53) [去涎方]治喉痺猪牙皂角五錢膽礬一錢半靑黛五分右爲末醋糊和丸櫻桃大每一丸以熟絹裹在筋頭上用好醋潤透將藥點在喉瘡上咬着筋其涎如水卽解後服防風通聖散(方見風門)<丹心>

54) ○生癮疹 或赤或白 防風通聖散(方見風門)去芒硝加豆豉葱白 倍麻黃 煎服 出汗<麗仙>

55) 內經曰勞汗當風寒薄爲瘡鬱乃痤此勞汗出於玄府脂液所凝防風通聖散去芒硝倍加芍藥當歸發散玄府之風調其榮衛俗云風刺<綱目>

안 달여 먹였는데 습열이 점차 없어졌다. 그 후 약은 쓰지 않고 기름기가 없는 음식만 먹이면서 1년 동안 잘 조리시켰는데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다.[56]

(15)【人病不過寒濕熱燥922】

내가 일찍이 防風通聖散으로 열과 조를 치료하고, 生料五積散으로 한과 습을 치료하여 각각 효과를 보았다.[57]

(16)【十八劑924】

防風通聖散은 輕劑이다.[58]

(17)【中風微漸945】

중풍 때 전구증상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麻木, 不仁하며, 손발에 힘이 약하거나 혹은 근육이 약간 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년 안에 반드시 중풍이 생기게 된다. 이런 때는 榮衛를 고르게 해야 하는데, 미리 愈風湯이나 天麻丸, 加減防風通聖散을 먹어서 중풍을 예방해야 한다.[59]

(18)【調治預防945】

원기가 점차 회복되고 痰飮이 차츰 없어지는데 아직 風邪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羌活愈風湯이나 防風通聖散 등을 가감하여 써서 알맞게 치료하면 낫는다.[60]

(19)【卒中風救急953】

대체로 怒火가 상승하면 정신이 아찔해져서 넘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것이 痰이 몹시 성하여 생긴 것이면 痰을 삭게 하고, 火를 내리는 치료법을 써야 한다. 痰을 삭이는 데는 省風湯이 좋고, 火를 내리는 데는 防風通聖散이 좋다.[61]

(20)【精神蒙昧】에 나오는 祛風至寶丹은 防風通聖散 加味方이다.[62]

(21)【手足癱瘓962】

아픈 것은 實證이기 때문에 먼저 이진탕을 쓴 다음 防風通聖散이나 河間換骨丹을 써야 한다.[63]

(22)【中風熱證966】

中藏과 中府가 다 나타나고 表와 裏를 겸하여 치료할 때는 防風通聖散을 쓴다.[64]

23)【防風通聖散】

治諸風熱或中風不語暴瘖語聲不出或洗頭風破傷風諸般風搐小兒驚風積熱或瘡疹黑陷將死或傷寒疫厲不能辨明或風熱瘡疥或頭生白屑或面鼻生紫赤風刺癮疹肺風瘡或大風癩疾或風火鬱甚爲腹滿澁痛煩渴喘悶或熱極生風爲舌强口噤筋惕肉瞤或大小瘡腫惡毒或熱結大小便不通幷解酒傷熱毒<宣明>○滑石一錢七分甘草一錢二分石膏黃芩桔梗各七分防風川芎當歸赤芍藥大黃麻黃薄荷連翹芒硝各四分半荊芥白朮梔子各三分半右剉作一貼入薑五片水煎服<入門>○此方治熱風燥三者之總劑也<丹心>

(24)【破傷風治法985】

파상풍이 만일 겉에 있으면 맛이 매운 약으로 발산시키고, 속에 있으면 쓴 약으로 설사시키면서 겸해서 발산시켜야 한다. 땀을 내고 설사를 시킨 다음에 榮血을 잘 돌게 하고 풍사를 몰아내려면 防風通聖散一兩에 荊芥穗 大黃 各二錢을 더 넣어 달인 물에 全蝎末 羌活末 各一錢을 타서 먹는다.[65]

(25)【破傷風之治同傷寒三法988】

파상풍이 表에 있으면 맵고 더운약으로 발산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防風湯 羌活防風湯 小續命湯 九味羌活湯을 쓴다. 병이 半表半裏에 있으면 맵고 서늘한 약으로 화해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羌麻湯 防風通聖散을 쓴다. 병이 裏에 있으면 성질이 찬 약으로 설사시켜야 하는데 小芎黃湯 大芎黃湯 左龍丸을 쓴다.[66]

(26)【燥宜養血1096】

防風通聖散은 능히 淸熱潤燥한다.[67]

(27)【通治三焦火1106】

宜用三黃湯三黃元(方見下)三補丸加味金花丸淸心丸大金花丸黃連解毒湯(方見寒門)防風通聖散(方見風門)淸火湯

(28)【通治火熱藥法1120】

火熱을 두루 치료하는 데는 防風通聖散, 黃連解毒湯이 좋다.[68]

(29)[防風通聖散]此方治熱風燥三者之總劑也盖風本於熱熱極則風生燥生於風風動則燥至其實一源流也此方能兼之其用防風麻黃薄荷荊芥使熱邪從玄府出也梔子滑石使熱邪從小便出也大黃朴硝使熱邪從大便出也其餘黃芩散肺火連翹散心火石膏散胃火芍藥散脾火川芎當歸和血潤燥白朮甘草補脾和中桔梗開膈可謂善於處方也(方見風門)<丹心>

(30)【酒病治法1137】

술을 마신 뒤에 바람에 상하여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터지는 것과 같이 아픈 데는 防風通聖散 黃連二錢 連鬚葱白 10뿌리를 넣어 달여 먹으면 곧 낫는다.[69]

---

56) ○一婦年少髮盡脫不留一莖脉微弦而濇此由厚味成熱濕痰在膈上而熏蒸髮根之血漸枯而脫用防風通聖散去芒硝惟大黃三度酒炒兼以四物湯酒製合和作小劑煎以服兩月濕熱漸解停藥淡食調養一年而復舊<丹心>

57) 夫寒濕屬陰 燥熱屬陽 人之爲病不過二者而已 善用藥者以苦寒而泄其陽以辛溫而散其陰 病之不愈者未之有也 余嘗以防風通聖散治熱燥 生料五積散治寒濕 各得其效也<醫鑑>

58) [輕劑防風通聖散]發表(方見風門)[淸劑凉膈散]積熱(方見火門)[解劑小柴胡湯]和解(方見寒門)[緩劑大胡湯]裏熱(方見寒門)[寒劑大承氣湯]痞實滿(方見寒門)[調劑調胃承氣湯]胃熱(方見寒門)[甘劑天水散]虛(方見暑門)[火劑黃連解毒湯]瀉火(方見寒門)[暑劑白虎湯]中暑(方見寒門)[淡劑五苓散]利水(方見寒門)濕劑三花神祐丸]泄水(方見下門)[奪劑三黃丸]瀉熱(方見火門)[補劑防風當歸飮子]補虛(方見火門)[平劑君子湯]氣虛(方見氣門)[榮劑四物湯]血虛(方見血門)[澁劑胃風湯]血痢(方見大便)[溫劑理中湯]中寒(方寒門)[和劑平胃散]和胃(方見五藏)

59) ○聖人治未病之病知未來之疾此其良也其中風者必有先兆之證覺大拇指及次指麻木不仁或手足少力或肌肉微掣者此先兆也三年內必有大風宜調其榮衛先服愈風湯天麻丸或加減防風通聖散(方見下)可以預防<丹心>

60) ○若眞元漸復痰飮漸消或覺風邪未退者仍以羌活愈風湯防風通聖散加減調治而安<正傳>

61) ○凡中風之證多是老年因怒而成盖怒火上升所以昏仆不省痰涎壅盛治宜豁痰瀉火豁痰宜省風湯瀉火宜防風通聖散(方見下)<丹心>

62) 祛風至寶丹 治風中藏昏冒及風熱滑石一兩半川芎當歸各一兩二錢半甘草一兩防風白芍藥各七錢半白朮六錢半石膏黃芩桔梗熟地黃天麻人參羌活獨活各五錢梔子三錢連翹荊芥薄荷麻黃芒硝黃連大黃黃栢細辛全蝎各二錢半右爲末蜜丸彈子大每一丸細嚼茶酒任下此乃防風通聖散加九味也<丹心>

63) ○痛者爲實先用二陳湯後用防風通聖散或河間換骨丹之類不痛者爲虛左癱服四物湯右瘓服四君子湯俱加竹瀝薑汁<入門>

64) 風者百病之始也善行而數變行者動也風因熱生熱勝則風動宜以靜勝其躁是養血也宜大秦艽湯(方見上)天麻丸若藏府兼見或表裏兼攻宜防風通聖散<入門>○風熱宜用小通聖散人參羌活散川芎石膏散淸氣宣風散透氷丹

65) ○破傷風如在表則辛以散之在裏則苦以下之兼散之汗下後通利榮血祛逐風邪防風通聖散(方見風門)一兩加荊芥穗大黃各二錢煎水調全蝎末羌活末各一錢服之<河間>

66) ○破傷風在表則以辛熱發散之宜防風湯羌活防風湯小續命湯(方見上)九味羌活湯(方見寒門)在半表半裏以辛凉和解之宜羌麻湯防風通聖散(方見上)在裏則以寒藥下之宜小芎黃湯大芎黃湯左龍丸<河間>

67) ○防風通聖散能淸熱潤燥

68) ○火熱通治宜防風通聖散黃連解毒湯

(31)【大頭瘟治法1387】

表證이 많으면 荊芳敗毒散을 쓰고 裏證이 많으면 防風通聖散 加惡實·玄參하여 약간씩 설사시킨다.[70]

(32)【治癰疽大法1413】

發表와 攻裏를 동시에 하려면 防風通聖散, 五香連翹湯이 좋다.[71]

(33)【大風瘡1464】

약을 먹어 蟲積을 밀어낸 다음에는 防風通聖散을 먹고 조리해야 한다.[72]

(34) 大風瘡에 [通天再造散]을 먹어 설사로 蟲을 나오게 한 다음 防風通聖散에 苦參 天麻 蟬蛻를 넣어 달여 먹으면서 조리하고, 기름진 음식을 절대로 금해야 한다.[73]

(35)【愈風丹】은 防風通聖散 달인 물로 먹는다.[74]

(36)【天疱瘡1469】

初起에 防風通聖散 一貼에 去麻黃 用硝黃하여 去內毒하여 胃氣가 조금 안정되면 다시 二一貼 去 硝黃 用麻黃하여 發汗하여 去外毒한 후에加減通聖散丸을 많이 먹는다. 內通臟腑 外發經絡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要藥이 된다. 가벼운 자는 한제를 복용한 후 다시 발라 씻으면 족하나 重한 자는 十貼을 복용한 후 化毒散을 3日 복용하고 吹藥을 3日일 복용하여 瘡이 마르고 딱지가 떨어지려 하면 다시 化毒散을 3日 복용한 후 防風通聖散 加減을 많이 사용한다....

초기에 消風敗毒散 加減通聖散 加減通聖丸을 먹는 것이 좋다. 뱃가죽에서부터 병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속에 열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다. 빨리 防風通聖散을 먹는다.[75]

(37)【搽藥方】

楊梅瘡, 天疱瘡을 치료하는데... 들국화나 대추나무 뿌리를 달인 물로 씻은 다음 防風通聖散에 蚯蚓糞을 섞어서 가루내어 약간 볶아 꿀에 갠 것을 붙여도 아주 좋다.[76]

(38)【癩頭瘡1494】

머리에 헌데가 생긴 것이 문둥병 비슷한 데는 防風通聖散을 가루내어 술에 불렸다가 약한 불기운에 말리기를 세 번 해서 끼니 뒤에 하루 세 번 끓인 물에 타 먹는다.[77]

(39) 小兒門의【諸瘡1717】

어린이의 癩頭瘡에는 防風通聖散을 술로 법제하여 가루낸 것을 한번에 4 g씩 물에 달여 먹이되 30첩이면 효과가 난다.[78]

3) 醫方集解[79]

防風通聖散 治一切風寒暑濕 饑飽勞役 內外諸邪所傷 氣血怫鬱 表裏三焦俱實 憎寒壯熱 頭目昏運, 目赤睛痛, 耳鳴鼻塞, 口苦舌乾, 咽喉不利, 唾涕稠黏, 咳嗽上氣, 大便秘結, 小便赤澁, 瘡瘍腫毒, 折跌損傷, 瘀血便血 腸風痔漏 手瘛瘲, 驚狂譫妄, 丹毒癮疹, 此足太陽陽明表裏血氣藥也.

防風, 荊芥, 薄荷 麻黃 輕浮升散 解表散寒 使風熱從汗出而散之于上 大黃 芒硝 破結通幽 梔子 滑石 降火利水 使風熱從便出而泄之于下 風淫于內 肺胃受邪 桔梗 石膏 淸肺瀉胃 風爲之患 肝木受之 川芎 歸 芍 和血補肝 黃芩淸中上之火 連翹散氣聚血凝 甘草緩峻而和中 白朮健脾而燥濕 上下分消 表裏交治 而能散瀉之中 猶寓溫養之意 所以汗不傷表 不下傷裏也. 本方再加人蔘補氣 熟地益血 黃柏 黃連除熱 羌活 獨活 天麻 細辛 全蝎 祛風 蜜丸彈子大 每服一丸 茶酒任下 名祛風至寶丹 本方除大黃 芒硝 名 雙解散.

4) 韓方臨床應用[80]

大黃, 芒硝, 甘草는 調胃承氣湯으로서 胃腸內의 食毒을 몰아내며 防風, 麻黃은 皮膚를 열어서 病邪를 發散하고 桔梗, 梔子, 連翹는 解毒, 消炎의 效能이 있으며 荊芥 薄荷는 頭部의 熱을 解消하고 白朮은 滑石과 같이 水毒을 腎, 膀胱으로부터 排泄하며 黃芩, 石膏는 消炎, 鎭靜作用을 하며 當歸, 芍藥, 川芎은 行血을 調整한다고 했다.

5) 天眞處方解說[81]

本方은 表寒, 裏實熱의 表裏俱實에 대한 處方이다. 적응하는 病態는 체내에 炎症이나 代謝亢進상태가 존재하여 熱의 생산이 높아진 것이 새로 感染되거나 또는 寒冷한 환경 때문에 表在血管이 수축되고 汗腺이 閉塞됨으로서 體表로부터의 熱發散이 막혀 鬱熱상태를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體溫은 상승하고 腸管의 연동은 억제되어 便秘가 되는데 수분의 吸收障害로 말미암아 尿가 농축된다고 생각한다. 즉 體表로부터의 熱發散도 大小便의 排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病邪가 表裏에 걸쳐 盛한 것을 表裏俱實이라 표현한다. 이밖에 體內에 炎症이 심하여 반사적으로 體表血管이 收縮하여 熱의 發散이 안되는 상태도 있는데 이를 가리켜 裏熱에 의한 表鬱이라 한다. 예전에는 表裏俱實을 체력이 充實한 것으로 보고 고위직 타입의 올챙이배를 목표로 했

69) ○酒後傷風 身熱 頭痛如破 防風通聖散(方見風門)加黃連二錢連鬚葱白十根煎服立愈

70) 表證多者荊防敗毒散裏證多者防風通聖散(方見寒門)加惡實玄參俱用酒炒微微下之<入門>

71) ○外證宜表散宜黃連消毒散內托羌活湯內證宜疎導宜內疎黃連湯仙方活命飮輕者淸熱消毒飮若發表攻裏兼行宜防風通聖散(方見風門)五香連翹湯<入門>

72) ○大風病是受得天地間殺物之風古人謂之癘風者以其酷烈暴悍可畏也得之者須分在上在下夫在上者以醉仙散取臭涎惡血於齒縫中出在下者以通天再造散取惡物虫積於穀道中出所出雖有上下之殊然皆不外乎陽明一經盖陽明者胃與大腸無物不受乃脾肺二藏之府也脾主肌肉而肺主皮毛乃府及於藏病也<丹心>○服藥下虫積後用防風通聖散(方見風門)調之重者又與換肌散夫上下同得者甚重自非醫者神手病者鐵心罕能免此若遇此疾切須戒鹽及一切口味公私世務悉宜屛去<丹心>

73) 治同上皀角刺黑大者一兩半大黃煨一兩白牽牛頭末三錢炒三錢生鬱金五錢右爲末每二錢或三錢早晨面東好酒調下當日利下惡物或膿或虫<入門>○服藥後泄出虫視其色如虫黑色乃是多年赤色是爲近年三四日後又進一服直候無虫乃止後取防風通聖散(方見風門)加苦參天麻蟬蛻煎服調理痛斷滋味<丹心>

74) 治癩疾深重一名三蛇丹治大風髮脫眉落遍身麻木瘡爛烏蛇白花蛇土挑蛇各一條並酒浸三日取肉爲末苦參一斤剉搗取頭末四兩皀角濃煎汁熬膏和丸梧子大以防風通聖散煎水呑下五十丸日二<入門>

75) ○初起卽服防風通聖散一貼去麻黃以去內毒再用一貼去硝黃發汗以去外毒以後用加減通聖散丸多服之此方爲首尾要藥輕者一劑重者十貼後宜服化毒散三日却用吹藥三日瘡乾欲落欲落再服化毒散三日後量用通聖散加減<入門>○失治久則風毒流入經絡而成頑癬或氣血虛敗而成漏或誤服水銀輕粉而成風堆腫爛流膿出汁病至於此治之爲難亦有蝕傷眼鼻腐爛玉莖拳攣肢體與癩無異<入門>○初起宜服消風敗毒散加減通聖散加減通聖丸從肚皮起者裏熱發於外速服防風通聖散(方見風門)

76) 治楊梅天疱遍身瘡爛杏仁十四枚鍼挑火上燒半生半熟輕粉一錢片腦二釐爲末猪膽汁或香油調搽<入門>○又野菊花棗木根煎湯洗後防風通聖散同蚯蚓糞爲末略炒蜜調付之極妙<入門>○又用千金散麝香輕粉散

77) 頭上生瘡如癩防風通聖散(方見風門)爲末酒浸焙三次食後白湯調服日三<丹心>

78) ○小兒癩頭瘡以防風通聖散(方見風門)酒製爲末每一錢水煎服三十貼見效又詳見諸瘡門可參考<丹心>

79) 汪昂 醫方集解 서울, 의성당, 1982, p. 68

80) 이상인, 안덕균, 신민교: 韓方臨床應用, 서울, 성보사, 1982

81) 이상인: 天眞處方解說, 서울, 성보사, 1987. p.296

으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 임상적용: 감기, 인플루엔자, 肺炎, 氣管支炎, 急性腎炎, 急性肝炎, 膽囊炎, 腎盂炎, 膀胱炎, 皮膚化膿症, 胃腸炎 등에서 表寒, 裏實熱 혹은 表鬱을 나타내는 것, 便秘症, Quincke浮腫, 肥滿, 高血壓 등 증에 사용해도 좋다.

6) 文獻考察

防風通聖散이 언급된 文獻들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金宋시대에는 溫熱病이 광범위하게 유행되어서 外感性 질환이 빈발하였고 지리적으로는 북부지방의 寒冷한 기후조건으로 술과 膏粱珍味를 많이 섭취하는 생활습관이 內熱을 많이 생성시켰다. 또한 당시의 香燥辛溫한 약물을 주로 쓰던 流行 등 시대적 배경은 劉가 대다수 질환의 病理를 火熱에서 기인한다고 보게 하였다. 劉는 內外의 風熱燥를 치료하기 위하여 凉膈散에 天水散을 합한 후 石膏, 桔梗, 防風, 當歸, 川芎, 赤芍藥, 麻黃, 荊芥, 白朮을 가미하여 防風通聖散을 만들었다.

《入門》에 언급된 防風通聖散의 조문들을 정리해 보면 外感病으로는 春溫의 表裏俱發證, 外感 太陽病에 邪傳入裏, 四氣互相兼倂에서 濕熱의 경우, 外感에 內傷이 挾한 경우[82], 瘡毒의 赤膈傷寒, 中風의 臟腑兼見者, 手足癱瘓, 痛風의 風證, 痓證. 外形으로는 頭風, 面風, 耳鳴, 耳聾, 鼻淵, 鼻痔, 喉痺와 斑疹, 痲毒, 禿瘡, 大頭腫, 五疥, 五癬, 癩風, 楊梅瘡, 楊梅의 피부병이 있었다.

이렇게 防風通聖散의 임상활용이 매우 광범위하였으며 이를 다시 表裏身形으로 구분하면 表證으로는 春夏溫熱 狀如傷寒 表裏俱見者 內證으로는 一切 風寒燥熱로 인한 飮酒中風 或 便閉 등이 있고 身形으로는 耳目口鼻 舌 咽喉 등에 나타나는 風熱과 風痰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癰疽, 瘡癤, 發斑 등 피부병에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養老門에서 老人의 火證과 風證에 通聖散을 사용한다고 하며, 각종 피부병에 調理藥으로 사용하는 등 약성이 맹렬하다고 보지 않았다.

《東醫寶鑑》에 防風通聖散이 나온 조문을 핵심 단어별로 정리해봤다.

(1) 陽明經이 나온 조문은 <大下愈狂><搭顋腫><耳聾><大頭瘟治法><大風瘡>

(2) 酒, 飮食, 厚味가 나온 조문은 <兩瞼粘睛><搭顋腫><耳鳴><耳聾><鼻痔><鬚髮黃落><中風熱證><酒病治法><大風瘡>

(3) 榮衛가 나온 조문은 <瘥痤痱><中風微漸><破傷風治法><治癰疽大法><大風瘡>

(4) 風이 나온 조문은 <搭顋腫> <耳鳴> <耳聾> <鼻淵> <瘥痤痱> <中風微漸> <精神蒙昧>의 祛風至寶丹 <手足癱瘓> <中風熱證> <破傷風治法> <酒病治法> <大風瘡> <天疱瘡>

(5) 怒, 火, 熱이 나온 조문은 <大下愈狂> 頭門의 <吐法> <搭顋腫> <兩瞼粘睛> <耳鳴> <耳聾> <鼻淵> <鼻痔> <引痰眞捷法> <癮疹> <鬚髮黃落> <人病 不過寒濕熱燥> <卒中風救急> <精神蒙昧>의 祛風至寶丹 <手足癱瘓> <中風熱證> <破傷風治法> <燥宜養血> <通治三焦火> <通治火熱藥法> <大頭瘟治法> <治癰疽大法> <大風瘡> <天疱瘡>

(6) 燥가 나오는 조문은 <人病 不過寒濕熱燥> <中風熱證> <燥宜養血>

《東醫寶鑑》에서는 술, 厚味 등 飮食으로 인한 內熱이 조성되거나 飮食이나 怒火가 陽明經을 침범하여 야기된 病(狂症, 耳聾, 耳鳴, 鼻痔, 酒病, 中風熱證 등)과 表裏之劑인 防風通聖散의 효능으로 전신 榮衛의 흐름을 조화롭게 하고(中風微漸, 癰疽, 破傷風, 大風瘡) 18제 중 輕劑에 해당되어 皮膚病을 치료하며(癮疹, 瘥痤痱, 癰疽, 癩頭瘡 등) 上焦病(頭, 面, 耳目口鼻, 咽喉)을 치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의 증상들은 火熱과 많은 관련이 있었다.

《醫方集解》에서는 防風通聖散이 一切風寒暑濕 饑飽勞役 內外諸邪所傷을 치료하는데 氣血怫鬱 表裏三焦俱實한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며 足太陽陽明表裏血氣藥이라 하였다. 또한 특이한 점은 防風通聖散이 上下分消 表裏交治 而能散瀉之中하는 중에 溫養의 뜻이 들어있어 汗하되 表를 傷하지 않고 下하되 裏를 傷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韓方臨床應用에서는 防風通聖散은 胃腸內의 食毒을 몰아내며, 皮膚를 열어서 病邪를 發散하고 解毒, 消炎의 效能이 있으며 頭部의 熱을 解消하고 水毒을 腎, 膀胱으로부터 排泄하며 消炎, 鎭靜作用을 하며 行血을 調整하는 처방이라 하였다.

天眞處方解說에서는 表寒, 裏實熱의 表裏俱實에 대한 處方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감기, 인플루엔자, 肺炎, 氣管支炎, 急性腎炎, 急性肝炎, 膽囊炎, 腎盂炎, 膀胱炎, 皮膚化膿症, 胃腸炎 등에서 表寒, 裏實熱 혹은 表鬱을 나타내는 것, 便秘症, Quincke 浮腫, 肥滿, 高血壓 등 증에 사용해도 좋다고 하였다.

3. 臨床例

臨床例들에서 알 수 있듯이 防風通聖散은 眼充血, 肺風瘡, 脫毛證, 각종 피부질환, 破傷風, 酒傷, 手足癱瘓, 耳聾, 耳鳴에 유효하였다.

모두 16개의 臨床例를 考察해 본 결과 防風通聖散의 형상을 陽明形 내지는 風人으로 본다면 8例는 形證이 모두 일치한 처방이었으나, 8例는 증상위주의 처방이였다.

증상위주의 治驗例를 살펴보면 그 증상이 대부분 피부병이었으며, 酒傷의 경우도 있었다.

결 론

防風通聖散에 대해 文獻考察과 形象醫學的으로 연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防風通聖散은 劉完素가 火熱病을 表裏雙解시킬 목적으로 立方하였고 火熱로 인한 風證과 燥證까지 치료하는 처방이다. 防風通聖散은 輕劑로서 주로 계위로는 上焦病, 신형에서는 皮膚病에 많이 활용되었고 그 효능이 汗하되 表를 傷하지 않고 下하되 裏를 傷하지 않는 和解之劑로 약성이 맹렬한 편이 아니었다. 防風通聖散은 술과 厚味로 인하여 생성된 內熱病에 주로 응용되었고 經絡的으로는 陽明經과 특히 관련이 많았다. 東醫寶鑑에서 防風通聖散이 언급된 조문은 神門 頭門 面門 眼門 耳門 鼻門 咽喉門 皮門 毛髮門 用藥門 風門 燥門 火門 內傷門 溫疫門 癰疽門 諸瘡

82) 挾內愼勿專攻外

門 小兒門에 수록되었다. 防風通聖散이 적용되는 형상은 六經形 중에 陽明形, 風人, 實熱이 있으면서 얼굴이 붉은 사람, 코끝이 붉은 사람, 얼굴과 코에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사람, 風熱로 인한 脫毛, 비듬이 잘 생기는 사람에 주로 사용된다. 防風通聖散을 形象醫學的으로 치료한 임상사례를 考察한 결과 眼充血, 肺風瘡, 脫毛證, 각종 피부질환, 破傷風, 酒傷, 手足癱瘓, 耳聾, 耳鳴 등에 유효하였다.

참고문헌

1. 劉完素. 宣明論方 券十. 서울, 麗江出版社, 1988.
2. 朱震亨 原著, 方廣 編註.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대성문화사, 1993.
3.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4.
4.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對譯 東醫寶鑑. 法仁文化社, 2002.
6. 汪昂 醫方集解. 서울, 의성당, 1982.
7. 이상인, 안덕균, 신민교. 韓方臨床應用. 서울, 성보사, 1982.
8. 이상인. 天眞處方解說. 서울, 성보사, 1987.
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대한전통한의학회, 서울, 1999.
1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대한전통한의학회, 서울, 1999.
1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대한전통한의학회, 서울, 1999.
1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대한전통한의학회, 서울, 1999.
1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I. 대한전통한의학회, 서울, 1999.